

2022년 9월 25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But in fact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For as by a man came death, by a man has come also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For as in Adam all die, so also in Christ shall all be made alive.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5:20-22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2022년 9월의 마지막 주일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전쟁과 전염병과 생태학적 위기로 고통을 겪는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써 헤쳐 나갈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만능에 사로잡혀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 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온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이 날마다 복음 안에서 생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금문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현장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행 중인 모든 성도들에게 안전하고 기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온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 The Resurrection

사도행전 Acts 13:30-37

30.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31.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들의 증인이라.

And for many days he appeared to those who had come up with him from Galilee to Jerusalem, who are now his witnesses to the people.

32.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And we bring you the good news that what God promised to the fathers.

33.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This he has fulfilled to us their children by raising Jesus, as also it is written in the second Psalm: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gotten you.”

34.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And as for the fact that he raised him from the dead, no more to return to corruption, he has spoken in this way: “I will give you the holy and sure blessings of David.”

35.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Therefore he says also in another psalm: “You will not let your Holy One see corruption.”

36.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For David, after he had served the purpose of God in his own generation, fell asleep and was laid with his fathers and saw corruption.

37.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But he whom God raised up did not see corruption.

사도 바울 선교와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언제나 “십자가”(the Cross)와 “부활”(the Resurrection)에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열 세 편 의 서신들은 서두에 모두 “은혜”(grace)와 “평강”(peace)을 기원합니다.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요, 평강은 부활에서 난 평강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 설교한 “구원역사 설교”를 증거 합니다. 지난주는 “십자가”를, 오늘은 “부활”을 증거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도 부활도, 참 믿기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누가 구원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 형틀에 달립니까? 돈이나 권세로 지켜주어야 믿지요. 그리고 역사상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것도 사흘 만에! 믿으려고 애쓰다가 그만두는 사람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것을 믿는 우리가 “어떤 다른 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하는 바울(Paul) 자신을 보십시오. 그는 “미쳤다!” 할 정도로 그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남과 전혀 다른 해법”이 있어야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생명(life).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강산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For what does it profit a man to gain the whole world and forfeit his soul?

마가복음 Mark 8:36

솔로몬의 전도서는 이렇게 기록 합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But he who is joined with all the living has hope, for a living dog is better than a dead lion.

전도서 Ecclesiastes 9:4

과거의 영광이 찬란한 어떤 죽은 왕보다, 지금 살아있는 작은 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For the living know that he will die, but the dead know nothing, and they have no more reward, for the memory of them is forgotten. Their love and their hate and their envy have already perished, and forever they have no more share in all that is done under the sun.

전도서 Ecclesiastes 9:5-6

“소망.” 그렇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생명일지라도 소망이 없으면, 그는 “이미” 죽은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활소망은 “보통 사람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소망입니다. 터무니없다, 치부해 버릴 정도로.

영원을 생각합니다. 영원은 모든 생명의 소망입니다. 세상에 믿기 어려운 것이 “영원”이며 “영생”입니다. 상식으로 보면 “모든 죽어가는 것들”입니다. 확실히 부활은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자들을 영원히 사는 자와 영원히 죽은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산 사람들이라고 해도, 순간을 사는 자는 영원을 사는 자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중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하셨던 정기성 목사님 추모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부활의 소망 말씀을 증거 한 젊은 목사님을 통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슬픔에 잠기는 대신 영생을 깊이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을 감사드려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했습니다. 정기성 목사님과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모님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결국 맞이해야 하는 죽음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옳기는 생명을 갈구하는 옳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극적인 내용입니다. 옳은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창조주 하나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For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at the last he will stand upon the earth. And after my skin has been thus destroyed, and out of my flesh I shall see God.

옳기 Job 19:25-26

과연 하나님께서 옳에게 나타나 주셨고, 옳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식들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재산이 두 배나 불었습니다.

그런데 옳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옳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And Job died, an old man, and full of days.

옳기 Job 42:17

사람은 결국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부활”과 “영생”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논리를 넘어서는 것이 “만남”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베다니를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다!”고 한탄하던 마르다(Martha)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의 불평은 논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oever believes in me, though he die, yet shall he live. And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요한복음 John 11:25-26

보십시오. “나는!” 여기서 그 유명한 I am! 선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 “YHWH”를 선포하신 그대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에 이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 육신은 “부활”이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And when he had entered, he said to them, “Why are you making a commotion and weeping? The child is not dead but sleeping.”
마가복음 Mark 5:39

부활할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우시면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도 “만남”입니다.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생명”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욥(Job)도, 그가 죽은 것은 “잠이 든 것”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Truly, truly, I say to you,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He does not come into judgment, but has passed from death to life.
요한복음 John 5:24

“영생을 얻었고.” 현재가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보십시오. 그는 멸망의 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입니다. 이미 사망은 그리스도인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Truly, truly, I say to you. An hour is coming, and now is here. When the dead will hear the voice of the Son of God. And those who hear will live.
요한복음 John 5:25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십시오. 산 자는 죽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것입니다.

2022년 올해로 국한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많은 주의 종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게는 소중한, 존경하는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묻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Precious in his sight of the Lord is the death of his saints. O Lord, I am your servant. I am your servant, the son of your maidservant. You have loosed my bonds.

시편 Psalm 116:15-16

성도의 죽음이 어째서 귀중합니까? 다윗에 따르면 “모든 결박을 푸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게 하신 것입니다.

SPR.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분리, 파송, 안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떠나(S), 천국으로 보내셔서(P), 영원히 안식하게 하신(R) 것입니다.

SPR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창조”로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신앙. 이것이 귀중합니다. 믿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진리입니다.

30.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말씀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31.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들의 증인이라.

And for many days he appeared to those who had come up with him from Galilee to Jerusalem, who are now his witnesses to the people.

빈 무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그 무덤이 비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 당신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이셨습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뵈었던 초대교인,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32.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And we bring you the good news that what God promised to the fathers.

그들 증인들의 설교를 듣는 모든 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바울과 그와 동행하는 바나바도 증입니다.

이들이 증거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33.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This he has fulfilled to us their children by raising Jesus, as also it is written in the second Psalm: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gotten you.”

구약성경, 특히 시편 2편에 기록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I will tell of the decree: The Lord said to me, “You are my Son. today have begotten you.”
시편 Psalm 2:7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예언입니다.

34.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And as for the fact that he raised him from the dead, no more to return to corruption, he has spoken in this way: “I will give you the holy and sure blessings of David.”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Incline your ear, and come to me, hear, that your soul may live. And I will make with you an everlasting covenant, my steadfast, sure love for David.
이사야 Isaiah 55:3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35.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Therefore he says also in another psalm: “You will not let your Holy One see corruption.”

여기서 “또 다른 시편”은 곧 시편 16편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For you will not abandon my soul to Sheol, or let your holy one see corruption.

시편 Psalm 16:10

36.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For David, after he had served the purpose of God in his own generation, fell asleep and was laid with his fathers and saw corruption.

비교합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 육신이 썩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육신이 썩지 않습니다.

이 비교는 이 시편 16편이 “다윗의 시편”이므로, 혹시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깨뜨립니다. 다윗은 일평생 장차 오실 메시아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물론 다윗의 육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37.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But he whom God raised up did not see corruption.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육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아닙니다. 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바울이 처음 선포한 부활신앙. 이것은 그가 생명 다 하는 날까지 붙들고 살아간 핵심신앙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뵈고 삶이 완전히 변한 바울 아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죽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날 잊지 말아요.” Forget me not! 이것은 “물망초”의 꽃말입니다. 사람은 잊히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다하여 자기 존재감을 부각합니다. 돌에다 이름을 새깁니다. 거대한 건축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결국 모든 죽은 자는 잊혀집니다.

세상의 모든 기념물들은 세월의 이끼가 끼고 비바람에 부스러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To the one who conquers I will give some of the hidden manna, and I will give him a white stone, with a new name written on the stone that no one knows except the one who receives it.

요한계시록 Revelation 2:17

흰 돌. 그 흰 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위에 기록하신 이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기념물들은 사라집니다. 인간이 부여한 이름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우리는 영원합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입니다. 당신의 모든 생명 약속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구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sham),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zakar),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ra),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yada).

And God heard their groaning, and God remembered his covenant with Abraham, with Isaac, and with Jacob. God saw the people of Israel. And God knew.

출애굽기 Exodus 2:25

우리 언약한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창조하셨던 우리를, 흠에서 끌어내셨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십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였습니다. 구원은 새 창조라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보십시오. 부활은 “새 창조”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We shall all be changed.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5:51c

부활은 옛날로 돌아감이 아닙니다. 새로운 영생의 길로 나아감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능력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인생길이 참 험난합니다. 주로 “경쟁”하는 “정글법칙” 안에서 “오징어게임” 같이 살아남기 위에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전혀 그 게임의 룰이 다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창조 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한반도 통일 문제가 관건입니다. 한반도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통일은 문 앞에 왔습니다. 부활신앙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가까이 온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같은 방식이라면 통일이 와도 더 걱정 아닙니까?

발상의 전환을 말하는데, 부활신앙은 인간 역사에서 누구도 가져본 적이 없는 진정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다들 죽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믿어 죽어도 살고,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피하여 도시를 만들었고, 사회를 구성했고, 입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의 허점은 “혼란”입니다. 오직 두려움 없는 사람들만 그 혼란의 때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풍랑 중에서 바울이 “아멘신앙”을 외친 그대로!

환경문제, 전쟁과, 인신매매 같은 문제를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갑니까?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땅 끝”마다 그런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좋은 데 찾아다니는 대신, 골치 아프고, 위험하고, 피곤한 길을 선택합니다. 거기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 합니다.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 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억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